

고즈넉한 무등산 원한다면 장불재~규봉암

동부사무소, 탐방로 소리 등급 발표
 전체 68%인 110km 비교적 조용
 화순 도원마을~규봉암 가장 낮아
 원효사~너덜경~장불재 소음 최고

지난 201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연 평균 357만명(지난해말 기준)이 방문하는 인기 산 중 하나다. 하지만 무등산 탐방객이 늘어날수록 시끄러워지며 한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었던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이하 동부사무소)가 무등산 소음을 초록~노랑~빨강 등 색채로 표현한 '탐방로 소리등급도'와 '소리지도'를 20일 발표했다. 이른바 소음 심한 곳과 조용한 탐방로를 알려주는 지도다.

동부사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등산 내 탐방로와 인접도로 18개 지점에서 소리경관(Sound-Scape·Sound와 Landscape의 합성어) 연구를 진행했다. 각 구간별 소리크기(dB·데시벨) 측정 결과를 ▲1등급 30dB 이하 ▲2등급 30~40dB ▲3등급 40~50dB ▲4등급 50~60dB ▲5등급 60dB 이상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2등급 이하의 조용한 지역, 4등급 이상부터는 소음 구간으로 지

정했다. '탐방로 소리 등급도'를 살펴보면 무등산 전체 탐방로(166km)의 68.3%인 110km가 소음에 영향을 덜 받는 비교적 조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한 탐방로는 바람재~중머리재, 중머리재~장불재, 장불재~규봉암~꼬막재 구간, 백마능선 구간(장불재~화순 안양산) 등이다. 특히 화순군 이서면 도원마을에서 규봉암으로 오르는 1.2km 구간은 전 구역이 30dB 이하로 측정돼 가장 조용했다.

등산객들이 목적지로 삼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머리재, 장불재 일부 지역은 4등급 이상이 나와 시끄러운 편에 속했다. 입도(林道)가 개설돼 있는 원효사~너덜경 약수터~장불재 구간은 대부분 5등급으로 차량에 의해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리지도'에서는 화순 도원마을 등 동남부권역에 조용한 지역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삼엄지구가 형성된 지역은 전반적으로 소음 정도가 심했다.

조용한 지역은 도원마을을 비롯해 들국화마을(화순군 수만리), 평촌마을(광주시 충효동) 등이다. 반대로 중심사지구, 원효사계곡, 광주 용연마을 등은 광범위하게 소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광주~화순간 22번 국도 인접 지역도 높은 데시벨을 기록했다.

나경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조사는 무등산의 소음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소리지도, 탐방로 소리등급도를 바탕으로 생태적으로 민감한 고지대의 소음 저감방안을 마



원효도 탐방객들에게 소리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3 해질 09:15
 해질 17:23 달질 19:38

체감온도 '뚝'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다.

| 지역 | 날씨 | 기온(°C) |
|----|------|--------|
| 광주 | 구름많음 | 0/11 |
| 목포 | 구름많음 | 1/16 |
| 여수 | 구름많음 | 4/11 |
| 나주 | 구름많음 | 3/11 |
| 완도 | 구름많음 | 3/12 |
| 강진 | 구름많음 | -3/12 |
| 강성 | 구름많음 | -2/12 |
| 장성 | 구름많음 | -3/10 |
| 보성 | 구름많음 | -3/10 |
| 순천 | 구름많음 | 6/12 |
| 영광 | 구름많음 | -4/10 |
| 진도 | 구름많음 | 1/10 |
| 진주 | 구름많음 | -1/10 |
| 군산 | 구름많음 | -2/9 |
| 남원 | 구름많음 | -4/11 |
| 축산 | 구름많음 | 6/11 |

| 지역 | 바다 날씨 | 소용돌이 |
|----|---------------------|------|
| 서해 | 앞바다 북~북동 0.5~1.0 | 높음 |
| 남해 | 앞바다 북~북동 0.5~1.5 | 높음 |
| 남해 | 앞바다(동) 북서~북 0.5~1.0 | 보통 |
| 남해 | 앞바다(서) 북서~북 1.0~1.5 | 보통 |

| 구분 | 시간 | 기온(°C) |
|----|----|--------|
| 목포 | 간조 | 08:39 |
| | 만조 | 03:23 |
| 여수 | 간조 | 21:16 |
| | 만조 | 03:58 |

| 구분 | 날씨 | 기온(°C) |
|-------|----|--------|
| 3/11 | 구름 | 3/11 |
| 2/9 | 구름 | 2/9 |
| 1/11 | 구름 | 1/11 |
| 0/12 | 구름 | 0/12 |
| 4/12 | 구름 | 4/12 |
| 1/8 | 구름 | 1/8 |
| -1/11 | 구름 | -1/11 |



"나눔으로 사랑의 온도 올려주세요"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열었다. 광주모금회는 모금 목표액을 51억8000만원으로 정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교대 총장 선출방식 직선제로

6년만에 전환...공모제 추천 후보들 반발 '변수'

13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가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다.

광주교대는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현재 간접선거 방식인 공모제를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교대는 조만간 학칙과 규정을 개정하고 정책 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책 연구팀은 토론회 등을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대학 사례도 조사해 개정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광주교대는 학칙과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탁해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구체적인 총장 선출 시기는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교대는 기존에 직선제이던 총장 선출 방식을 2011년에 간접선거 방식인 공모제로 바꿨다가 6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전환하게 됐다.

광주교대는 간선제를 주장했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선출 방식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모제 후보로 교과부에 추천됐던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 '탐방환경 신호등'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실시간 제공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일 천황지구 주 탐방로 입구에 탐방환경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월출산 탐방환경 신호등은 미세먼지·산불위험·폭염·자외선·한파 지수 등 탐방객이 관심 두는 계절별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초록·주황·빨강 3가지 색 신호등처럼 표기에 탐방환경의 좋고 나쁜 상태를 알린다.

호우·대설·태풍·강풍 등 기상특보 발표 시에는 음성·전광판 문자 등을 활용해 환경정보 안내를 특보상황 전달로 자동 전환한다.

기상특보로 탐방객 출입이 통제되면 빨간 불을 점등하고 차단기를 내린다. 이밖에 입산 가능 시간(3-10월 새벽 4시-오후 3시·11-2월 새벽 5시-오후 2시)이 지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김성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신속한 상황 전파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공원관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염영=문병선기자 moon@

광주서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광주지역에서 올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0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사업을 펼친 결과 지난 15일 채취된 호흡기환자 표본검체 28건 중 1건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나왔다.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역시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A(H3N2)형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독감 예방접종도 늦지 않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아동학대 2년새 두배 급증

올 7월까지 534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수는 2015년 253건에서 지난해 345건으로 40% 늘었다.

지난해 10월 접수기관이 1곳(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더 신설된 접수기관이 모두 2곳으로 늘어난 탓도 있지만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무려 534건에 달해

아동 학대 급증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와 재작년을 단순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100건 가까이 더 늘어난다.

올해 접수한 사례는 남자가 280건, 여자 254건이다. 이중 정서적 학대가 90건, 신체 학대 89건, 성 학대 44건, 방임 33건 등이며 중복학대는 274건에 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양동·소룡호텔 / 주월동·성관어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동선동·안석동·남원교회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쌍촌동·원도식육옥상, 임미지동·김지,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옥상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족식물,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은누리마트 / 서양동·마을금고주유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해가온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